



천주교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http://www.sjkoreancatholic.org/>

9 순교자 성월

“연중 제 26 주일”

[루카 13, 19-31]

2010.9.26

금주의 강론

(마산 백남국 신부님 강론에서)



오늘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반대로 고통 받던 거지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지위가 역전이 된 것이죠.

복음에서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지요? 그는 자기 집 대문간에 더부살이 하는 라자로를 더럽다고 쫓아내지도 않았으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말라고

타박을 주지도 않았습니니다. 단지 그는 라자로를 못 본 척, 외면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자의 죄였던 것입니다. 라자로를 보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의 무관심과 차가운 마음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비유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신앙인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잘 대해주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형제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삶으로서 마지막 날 편안히 하느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필립보 네리 형제님 막내 **Stephen**이 오는 **9월25일(토)**에 **Fremont Symphony**와 협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하시고, 티켓구입과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야유회를 **9월 26일(일)** Sylvan park 600 Sylvan Ave. Mt View 94041에서 교중 미사 후에 있습니다. 모두 간단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하시어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집드리점 저녁 초대**를 하셨습니다.
연제; 10월 1일(금요일) 저녁 6:00. 어디에; 902 Kara Way, Campbell, CA 95008
408-634-8844
- 이흥진 테레사 자매님 부부는 3 주간의 여정으로 9/10/10에 고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집회1,13)”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
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
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
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
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
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
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
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
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

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
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
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
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
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1분 명상

“아름다운 선물 ”

일상의 삶에서 자주 체험하듯이
작은 것이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마음이 담겨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큰 선물이 됩니다.



- 들어주는 선물
다른 사람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의 하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말을 막지도 말고,
판청을 부리지도 말고,
대답할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저 들어주어라,

- 애정의 표시
사랑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껴안아주고,
어루만져주라,
짙막한 사랑의 글을 적어
깜짝 놀랄만한 곳에 넣어두라,
지갑이나 도시락 가방,
호주머니 아니면 양말 속도 좋다,
이런 하찮은 행동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 준다.